

‘전주시립미술관 소장품 확보’ 심의 체계 가동

시, 작품추천·수집심의위원회 14명 위촉... 개관 위한 소장품 수집 단계별 추진

전주시가 향후 전주시립미술관에 소장할 작품들을 전문가들의 엄정한 심의를 거쳐 선정하기로 했다.

시는 27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오는 2028년 개관을 목표로 건립을 추진 중인 전주시립미술관의 체계적이고 공정한 작품 수집 추진을 위한 작품추천·수집심의위원회 14명을 위촉했다.

앞서 시는 전주시립미술관 작품수집 심의기구인 작품추천위원회와 작품수집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해 공개모집과 유관 기관 추천을 병행해 관련 분야 전문가 총 14명을 최종 선정했다.

이날 위촉식에서 시는 참석위원회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하고, 전주시립미술관의 건립 추진 상황을 공유했다.

또한 향후 소장품 수집 방향과 계획에 대해 위원들과 자유로운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이날 위촉된 14명의 위원은 향후 수집 대상 작품의 예술적 가치와 미술사적 중요성, 미술관 운영 방향과의 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심의하게 된다.

이와 관련 시는 향후 건립될 전주시립미술관이 지역 대표 공립미술관으로서의 기반을 갖추 수 있도록 개관 전까지 100점 이상의 소장품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전주시는 27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오는 2028년 개관을 목표로 건립을 추진 중인 전주시립미술관의 체계적이고 공정한 작품 수집 추진을 위한 작품추천·수집심의위원회 14명을 위촉했다.

이를 위해 전주 미술사와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반영할 수 있는 주요 작가 작품을 중심으로 구입과 기증 등을 통해 작품수집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노은영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전문가

의 심의를 바탕으로 지역성과 예술성을 갖춘 작품을 체계적으로 수집해 개관 시점부터 신뢰받는 공립미술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미술관서 만나는 영화 ‘암탉의 모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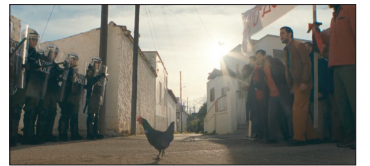
전북도립미술관, 전주국제영화제 협업... 30일 상영·관객과의 대화 개최

전북도립미술관(관장 이애선)은 제27회 전주국제영화제와의 협업으로 진행 중인 특별 상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오는 30일 영화 ‘암탉의 모험’ (97분, 전체관람가) 상영 및 관객과의 대화(GV)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영화제 기간을 놓친 도민들과 관객들에게 예술적 경험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자 기획되었다. 지난 2일과 16일에 진행된 ‘또 다른 여름의 꿈’ 상영에 이어, 이번에는 가족 단위 관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따뜻하고 깊이 있는 작품으로 관객들을 찾아온다.

5월 30일과 6월 6일 두 차례에 걸쳐 상영되는 ‘암탉의 모험’은 제27회 전주국제영화제 월드시네마 초청작이다. 헝가리를 대표하는 감독 중 한 명인 팔피 죄르지(PALFI Gyorgy)의 작품으로, 운명을 거부하는 암탉의 여정을 통해 역설적으로 우리 인간들의 삶을 비추어낸다. 해당 영화는 흠입력있는 스토리라인을 갖춰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전 세대가 함께 관람하기에 좋은 평을 받는다.

특히 5월 30일 첫 상영 직후에는 작품의



예술적 가치와 메시지를 심도 있게 나누기 위한 ‘관객과의 대화’가 이어진다. 지난 상영에 이어 조영각 프로듀서가 게스트로 참여하고, 전주국제영화제 김효정 프로그램 매거 모더레이터를 맡아 풍성한 대화를 이끌 예정이다. 두 전문가의 깊이 있는 시선을 통해 작품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는 물론, 전주국제영화제에 얽힌 흥미로운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들어볼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프로그램은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별도의 사전 예약 없이 당일 선착순 200명까지 입장하여 관람할 수 있다. ‘암탉의 모험’은 6월 6일 현충일에 한 차례 더 상영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도립미술관 (063-290-6876)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재훈 기자

소장품전 ‘아침의 아이’ 연계 공연

남원시 김병중미술관, 내달 6일 현대무용·가야금 라이브 연주 결합 무대

남원시 김병중미술관은 다음 달 6월 6일 오후 2시, 전시 연계 공연을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현재 진행 중인 소장품전 ‘아침의 아이’와 연계하여 마련된 것으로, 김병중 화백의 작품에 담긴 생명과 자연의 미학을 무용과 음악으로 확장해 보다 입체적인 예술 경험을 제공하고자 기획했다.

아침의 아이는 김병중 화백의 호인 ‘단아(短兒)’에서 출발한 전시로, 세상을 처음 마주하는 아이의 설렘과 호기심을 담으며, 전시는 미술관 소장품 가운데 1980년대 초기작부터 최근 작품들을 아우르며 작가의 예술세계를 폭넓게 조망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공연은 안무가 장혜림이 이끄는 동시대 무용단체 ‘99아트컴퍼니’와 가야금 연주자 이화영이 참여해 현대무용과 가야금 라이브 연주를 결합한 공연이며, 무용수들의 움직임과 음성, 가야금 선율은 자연의 흐름과 생명의 리듬을 공간 안에 풀어내며 관람객과 호흡할 예정이다.

특히 김병중 화백의 대표작 ‘숲은 잠들지 않는다’에 나타난 드로잉의 선과 흐름을 신체 움



직임으로 재해석해, 붓의 결을 연상시키는 동작과 호흡으로 자연의 생명력을 무대 위에서 구현한다.

작품에 내재한 자연과의 합일, 여백의 사유, 절제된 울림 등 한국적 미의식을 공연 언어로 풀어내며, 시각과 청각, 공간 감각이 어우러지는 몰입형 예술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 단편영화 촬영 장비 지원사업 공모

전주영화제작소가 전북지역 영화 제작 활성화와 창작 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 전주 단편영화 촬영 장비 지원사업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재)전주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 전주영화제작소는 전북지역 영화인들에게 실질적인 제작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촬영 장비 지원사업 참여 작품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전주영화제작소가 보유한 촬영 장비를 지원해 지역 영화·영상 제작 환경을 개선하고, 전주 영화·영상 산업의 경쟁력과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영화 기획 단계 또는 시나리오 초고 단계에 있는 영화·영상물이며, 작품 제작 완료 후 추가 촬영 목적의 신청은 불가능하다.

신청 작품은 총 1편이다. 지원 장비는 기본 촬영 장비를 비롯해 지역 내 입대가 어려운 무선 영상 송수신기와 무선 팔로우 포커스, 17인치 모니터 등 전문 장비까지 포함된다.

지난 28일부터 시작된 접수 기간은 오는 6월 9일 오후 3시까지이며, 이메일 접수만 가능하다.

신청은 1개 작품에 한해 가능하다.

/김재훈 기자

완산병커 더 스페이스, 이국열 작가 ‘정글고래 특별전’

전주시와 전주관광재단은 오는 6월 28일까지 완산병커 더 스페이스 1관 ‘시크릿스토리’에서 이국열 작가의 테라리움 단독 기획전 ‘정글고래 특별전 : 병커를 유영하는 정글고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미디어아트 시설 내부에 이기와 자생 식물 등 실제 자연 요소를 결합해 관람객에게 색다른 치유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녹색의 침묵, 나만의 울림’을 주제로 한 다양한 테라리움 작품들이 어두운 병커 공간과 대비를 이루며 독특한 몰입감을 선사한다.

이국열 작가는 한국테라리움협회 지도사이자 테라리움 작가·강사로 활동하며, 인간의 개성을 최소화한 생태계 순환 구조를 유리병 속에 구현하는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전시장에는 자연과 인공물이 결합된 다양한 작품이 공개된다.

반가사유상과 달항아리 등에 식물이 스며든 ‘사유와 숨결’은 고요한 시간의 흐름을 표현하며, 자생적으로 균형을 찾아가는 식물의 변화를 담은 ‘회복의 숲’도 선보인다.

또 인간의 흔적 위로 다시 자라는 생태 순환을 다룬 ‘마지막 이후’, ‘마지막 한 방울’, 숲의 긴장감을 표현한 ‘정적의 숲’, 상상적 존재를 담은 ‘탈출’ 등 총 20여 점의 전시된다.



유선중 전주관광재단 대표이사는 “완산병커 1관이 이국열 작가의 작품과 만나 생명력이 살아있는 치유 공간으로 변화했다”며 “앞으로도 공간 특성을 살린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완산병커 더 스페이스 공식 SNS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재훈 기자

